

HEREN

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

APRIL 2015

GENTLEMEN'S PASSION

2015 미슐랭 스타 셰프, In & Out
런던·파리·도쿄, 마니아들의 여행법
Rising Art City, Hong Kong



SIGNIA
CREAM

HERA

선구자의 시간

난해하게만 느껴지던 비디오아트로, 생의 속살을 이토록 서정적이고도 철학적으로 담아낼 줄이야. 영상 시인 빌 비올라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장르로 평생을 천착해온 주제를, 시처럼 써내려갔다.

현존하는 최고의 비디오 아티스트 빌 비올라(Bill Viola)와의 이야기를 풀어 놓기 전, 에디터의 사적인 기억부터 나눠볼까 한다. 작년 7월, 파리를 여행하던 중 문화 성지순례를 하는 기분으로 그랑 팔레(Grand Palais)에 들렀던 적이 있다. 미국의 사진가 로버트 메이플소프(Robert Mapplethorpe) 전시와 함께 그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던 중이었다. 하나의 전시만 택해야 했던, 쓸데없이 촘촘한 여행자의 시간 탓에 빌 비올라 전시장으로 향했다. 파리에 왔으니, 웬지 좀 더 심오하고 철학적인 전시를 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른 오전 시간임이 무색하게 어두운 전시장은, 망부석처럼 비디오 화면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는 관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인종과 성별, 나이가 모두 제각각인 사람들이 각자의 프레임 안에서 물속에 잠겨 꿈을 꾸는 듯, 죽어 있는 듯 떠 있고('몽상가들', 2013),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장엄하게 흐르는 가운데 한 여자가 수많은 촛불에 기도하듯 하나하나 불을 밝히고 있었으며('불의 여인', 2004),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과 함께 하늘 위로 승천하듯 떠오르는 한 남자('승천', 2000)의 모습은 하나같이 압도적이었으며 아름다웠고, 명상적이었다. 비디오아트라는 가장 현대적인 수단을 이용해, 조물주처럼 시간을 뒤로 감았다가 길게 늘리면서, 인간의 감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영상 시인'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호기심에 불을 지핀 건, 관객들의 모습이였다. 짧으면 7분, 길면 30여 분에 이르는 비올라의 작품들에 예를 갖추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 작품이 끝날 때까지 침묵하며 진지하게 감상하는 태도란. 영당이 가벼운 관광객조차 그의 세계에선 잠시나마 변화됨이, 종교인으로 교화되는 모습을 보는 듯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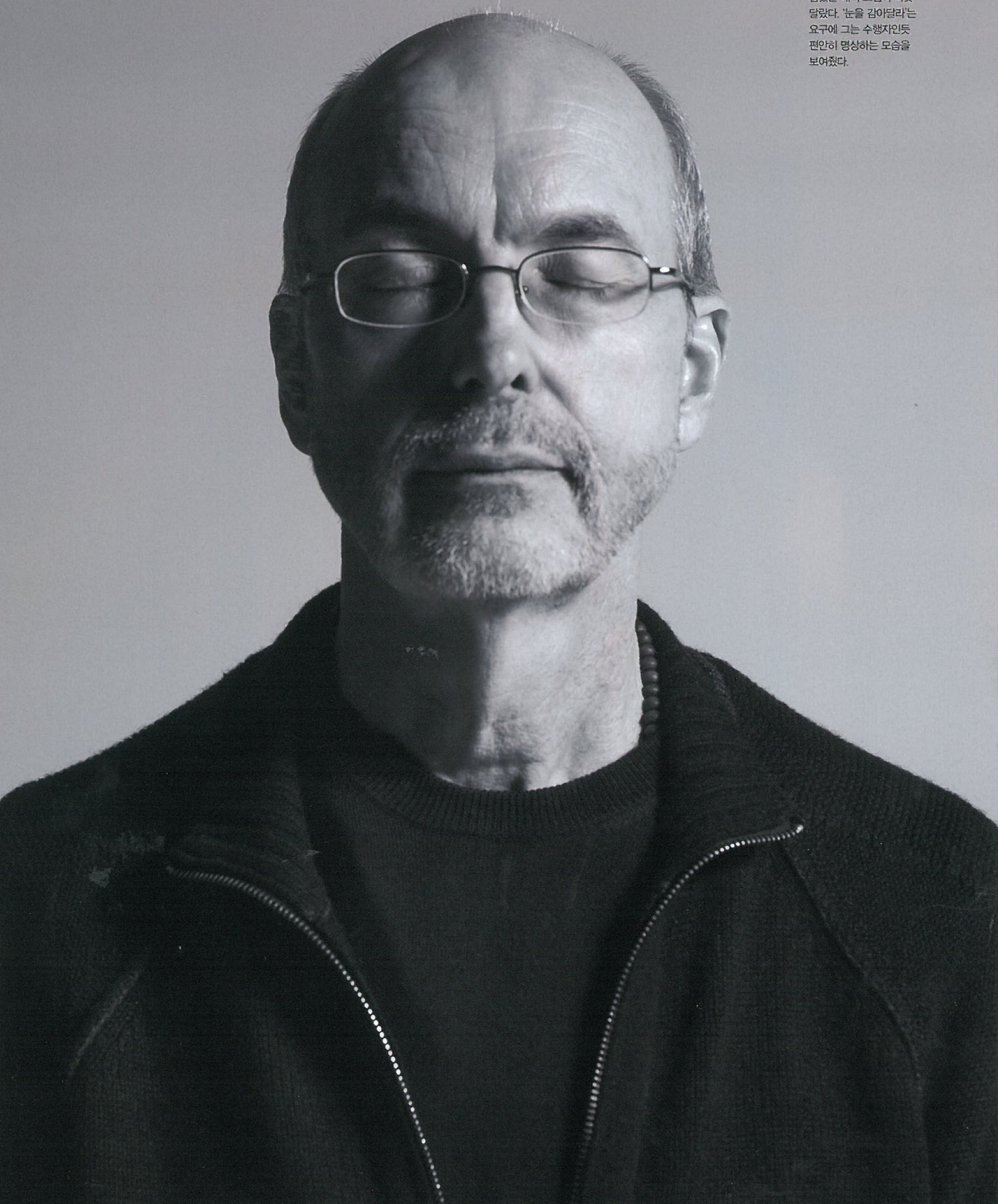
비디오아트를 현대미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한 선구자이며, 난해하지 않은 최신 미디어로 '인간' 자체를 숭고하게 탐구하니 미술계의 열광은 당연했다. 뉴욕 모마와 휘트니 미술관, 런던 내셔널 갤러리, 도쿄 모리 미술관 등 세계 유수 갤러리에서 끊임없이 대형 전시가 열리는 것은 물론, 구겐하임 미술관, 테이트 갤러리, 쿤스트할레 바젤, 까르띠에 파운데이션 등이 앞다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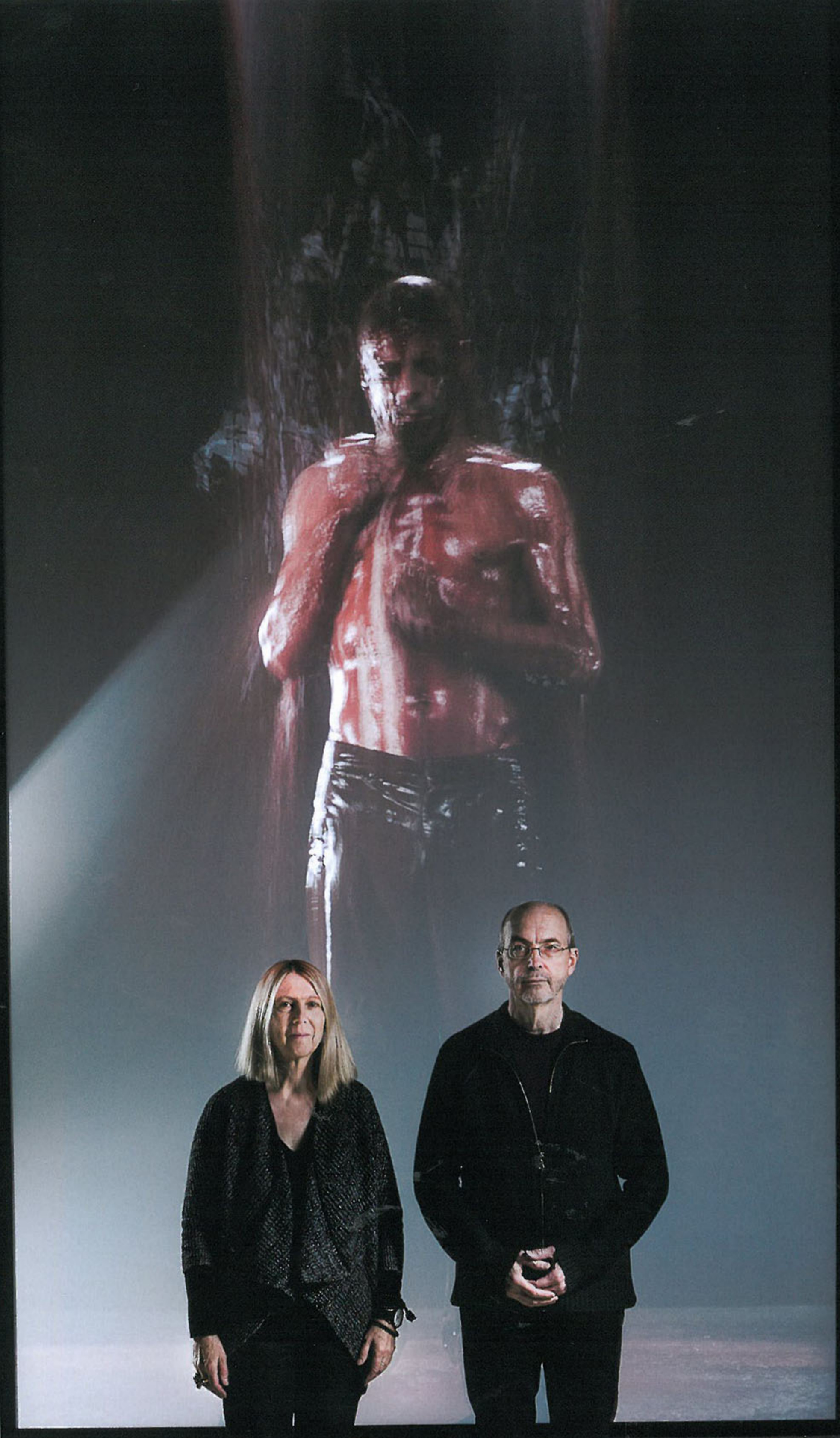
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을 정도, 1996년 이탈리아에서 열렸던 제46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선 미국 대표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빌 비올라는 이름만으로도 눈을 반짝이는 이들이 전 지구적이란 방증이다.

비올라 특유의 분위기는 2003년과 2008년 이후 한국에서 3번째로 열리는 그의 개인전(3월 5일부터 5월 3일까지, 국제갤러리 2관, 3관)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어졌다. 갤러리 3관 지하에 마련된 기자간담회장엔 아내이자 빌 비올라 스튜디오의 실질적 책임자인 키라 페로프(Kira Perov)가 먼저 기자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Passion' 시리즈 중 하나로, 재앙에 맞닥뜨렸는지 슬픔과 고통에 일그러지는 사람들의 표정 변화를 담은 'The Quintet of the Astonished'(2000)를 배경으로 빌이 나지막이 키노트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취재 열기로 뜨거웠던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경건한 예배당 같아졌다. '삶과 죽음, 고통과 환희, 영적 순간' 등 형이상학적인 주제들을 40여 년간 다루왔기 때문인지, 빌 비올라 그 자체가 수도승 같아 보였다.

"부처는 이야기했어요. 삶은 고통이라고 여러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죠. 전 고통과 구원 모두 필요하나, 특히 고통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감정의 폭이 깊어지며 삶의 프레임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7점의 이번 전시작 중 하나인 '물의 순교자'(2014)를 보라. 발목을 포박당한 한 남자가 거꾸로 매달려 끌려올라가며, 그 위로 '폭력적'일 정도로 세찬 물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사실, 고통은 물뿐만이 아니다. 흙, 공기, 불 등의 4대 원소에 의해 각각의 순교자들은 극한의 고통에 빠진다. 느린 속도로 7분간 이어지는 고통의 향연, 그 끝엔 소리 지르고 일그러진 육체 대신 고통을 감내한 담대한 인간만이 있을 뿐. 이 '순교자' 시리즈는 2014년 5월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선보인 대형 비디오 영구 설치 작업으로 다빈치, 램브란트, 카라바조 등 뛰어난 예술가들에게 성화 제작을 주문했던 유럽 교회의 오랜 역사를 잇는 전통인 동시에 전통 회화가 아닌 비

빌 비올라는 눈을 떴을 때와
감았을 때의 느낌이 사뭇
달랐다. '눈을 감아달라'는
요구에 그는 수행자인듯
편안히 명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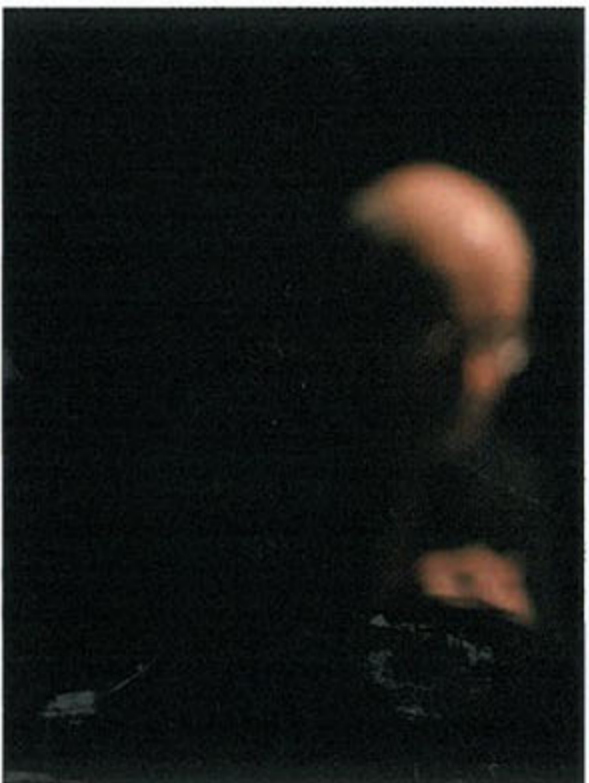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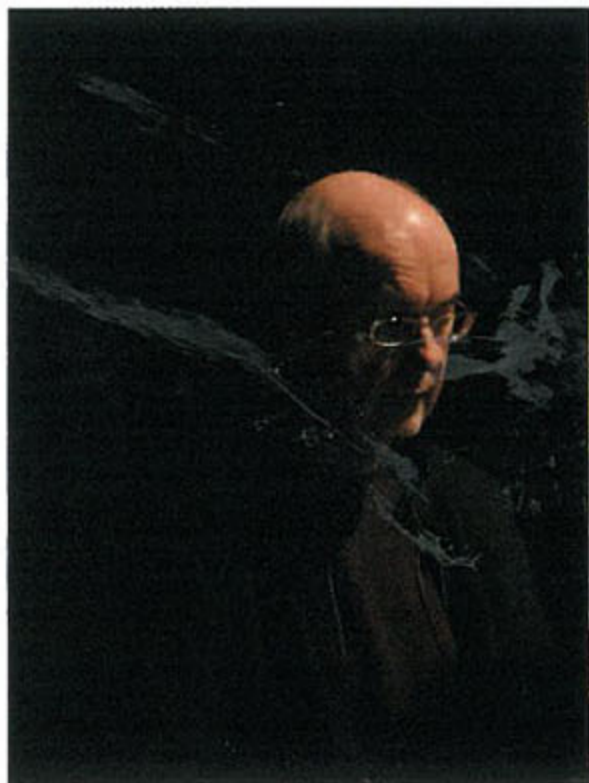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5m 규모의 설치작 '도치된
탄생'(2014)앞의 빌 비올라와
키라 페루프

비올라가 인간과 삶의 기저에 골몰하게 된 데는, 선불교승이자 화가인 다이엔 다나카와 교류한 탓도 있었다. 탄생과 죽음, 의식, 삶 등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영적인 영역을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삶을 관조하는 여유로움까지.

디오아트가 걸린 최초의 '사건'이기도 했다.

이번 전시의 또 다른 대작 '도치된 탄생'(2014)에도 '물'이 다시 등장한다. 한 남자를 잠식한, 서서히 차오르는 검은 액체가 붉게 변하더니 이번엔 깨끗한 물로 정화된다. 이번엔 물이 고통이 아니라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밖에서 뛰놀 때 저는 내면과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죠. 여섯 살 때 익사할 뻔 한 적도 있었어요. 호수 바닥을 등지고 점점 가라앉는데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물방울,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풍경... 너무 아름다웠죠. 삼촌이 절 구하러 오셨는데도 제가 자꾸 삼촌 팔을 밀어냈대요. 황홀했던 당시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작품에 표현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승인지 저승인지 모를 비현실적인 공간 안에 오롯이 담긴 인간의 감정이, 묘하게 두려우면서도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에 있었으리라! 미국 뉴욕 퀸스에서 펜암 항공사 승무원이던 아버지와 가정주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조용하고 부끄러움 많던 소년 빌은,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것만으로 반에서 화가로 불릴 정도로 미술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뽐냈다. 다른 애들이 장난인지 그림인지 엉망진창으로 핑거 페인팅을 할 때, 그는 토네이도를 그렸다! 시라큐스 대학교 실험 스튜디오에서 비디오와 사진, 전자음악 등을 공부한 빌 비올라는 졸업 후, 에버슨 미술관에서 비디오 테크니션으로 일하며 유명 아티스트들의 전시 설치 작업을 돕게 된다. 그때 만난 사람이 비디오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이었다. "조수로 잠깐 일했었어요. 노인이든 청년이든, 모든 사람에게 오픈 마인드인 분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도 넘쳐났고요. 무엇보다 비디오아트에 대한 기술이 전무하다 싶던 시절 오픈 소스를 제공했다는 점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훌륭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는 1970년대 초반, 여전히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비디오 아트계



에서 슈퍼8 필름과 흑백 비디오로 꾸준히 작품을 만들어냈다. 지금은 스티븐 스피버그 사단의 카메라팀에서 일했던 전문가와 함께, 오래된 카메라와 신형 카메라로 동시 촬영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빌 비올라만의 또 다른 특징은 작품들이 느린 호흡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그의 시그니처 기법인 슬로모션 말이다. 10분이란 기나긴 시간 동안 충격과 허망함을 표현하지만, 사실 1분 안에 촬영된 'The Quintet of the Astonished' 같은 작품이 대표적. "1990년쯤 인간의 감정을 긴 시간 동안 늘이면 어떨까 싶었어요. 배우들에게 감정의 곡선을 1분 안에 표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촬영을 진행하는데 그 결과물을 10분이든 80분이든 늘려

보는 겁니다." 내밀한 감정 표현을 위해 연극배우들과 진행하거나 빌 본인이 퍼포머로 직접 연기하기도 했다. 연기라기보단 자아 성찰이기 때문이다. '눈빛'이 좋은 배우를 뽑는 역할을 아내이자 빌 비올라 스튜디오의 실질적인 수장인 키라 페로프가 담당한다. 빌 비올라는 교양 미술 담당자이자 사진가였던 키라를 1977년 호주 멜버른에 전시를 하러 갔다가 만나 1979년부터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빌이 안테나를 세워 우주 어딘가에서 아이디어를 받으면, 제가 전체 스케줄을 고려해 이 아이디어는 언제쯤 실현해볼지 조율해줍니다.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죠." 빌 비올라의 모든 전시와 도록, 배우 캐스팅, 의상 등을 관리한다는 그녀는 비올라가 'She's very incredible' 이라고 연신 읊조릴 만큼 내조의 여왕이었다.

그가 인간과 삶의 기저에 골몰하게 된 데는, 불교와 기독교, 수피(Sufi)와 선(Zen), 신비주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연구에 더해 1980년 1년 남짓 일본에 머물며, 선불교승이자 화가인 다이엔 다나카(Daien Tanaka)와 교류한 탓도 있었다. 연구소 거주 작가로 지내며 탄생과 죽음, 삶, 의식 등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영적인 영역을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삶을 관조하는 여유로움까지. "당시 내게 '유머'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터계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항상 즐겁게 임하라 하셨죠. 그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실제로 이야기 나눠 본 비올라는 장중한 작품에 비해 훨씬 따스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다.

현존하는 최고의 비디오아티스트인 빌 비올라도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

온 물음이 있었다. '당신은 누구이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역으로 그에게 던졌다.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번 사는 인생에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천천히, 긴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여기, 유한한 세상에 살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크든 작든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탄생이 시작이 아니고 죽음도 끝이 아니다'란 말이 있듯이요. 예술도, 기술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유난히 평온해 보이는 빌 비올라의 머리 뒤로 후광이 보였다. 그리고, 과장된 걸까. **FR**

editor 정승혜 photographer 정정호

cooperation 국제갤러리